

중랑구 묵동 주택가서 뼈라 1000여장 발견

등록 2017.05.14 10:38:27



NEWSIS

【서울=뉴스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묵동 주택가에서 대남선전전단의 일종인 '뼈라' 1000여장과 CD 약 30장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뼈라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의 한 주택에서 "집에서 쉬는 중 쿵 소리가 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 뼈라가 있었다"는 신고로 발견됐다.

뼈라에는 '5.18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빌딩 사진과 함께 "핵전쟁은 우리식의 대응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뼈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뼈라가 떨어질 때 생긴 충격으로 인근 가옥의 기와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며 "현재 뼈라와 CD는 군 당국에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